

종계장내 가금티푸스 백신접종 바람직하지 못하다

- 백세미, 종계에 준하는 질병방역관리 따라야 -



올한해는 그 어
을느 해 못지않
게 질병으로 인한 피
해로 농가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종
계의 경우 병아리 생
산성이 저조해 지면
서 병아리 가격은 고
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종계 500
만수가 넘어 과다입

식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거대한 변수가 생산성을 악화시켰다고 풀이해 볼 수 있다. 한편 가금티푸스와 같은 질병으로 병아리 입식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으며, 뉴캐슬병 등 각종 질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생산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질병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번 강조되는 시기이다.

본회에서는 지난 10일 정부·학계·생산자로 구성된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를 개최하여 질병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중 위원장(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을 비롯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최준구 회장이 배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HPAI 현황 및 대응방안, 효과적인 ND 근절대책 방안 등이 다루어졌는데, 주요사항은 정부건의 및 농가 홍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종계 가금티푸스 현황 및 대응방안

1) 가금티푸스 백신접종 대두

설비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종계장은 티푸스로 인해 뚜렷한 보상책 없이 질병으로 인한 강제폐기(살처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재건하기가 여간 어려운데 아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티푸스 백신접종이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금티푸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티푸스 피해를 입게 되면 생업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자신만 안하면 손해라는 의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한편 산란실용계에서 생산된 백세미가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어 티푸스의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감시관리가 미치지 못해 불법임에도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역원이 최근 티푸스 백신과 관련하여 조사중인 내용에서도 발병사례보다 발병을 우려한 백신접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

해로 보아 음성적으로 백신접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백신접종에 대한 입장

일부 백신접종을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으나 대다수의 위원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백신접종을 허용하면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종계에 백신을 접종하면 종계에는 효과는 있지만 티푸스를 근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계대로 후대 병아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계에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백신접종을 방지하고 티푸스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강제폐기(살처분)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백세미 대책 수립이 시급

한편 산란실용계는 식란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티푸스백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 티푸스 백신을 접종한 산란실용계에서 백세미를 생산하고 있어 질병전파를 확대한다고 지적하며,



▲ 위생방역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 김선중 위원장

또한 음성적인 종계 백신접종 문제도 백세미가 더욱 부추긴다고 보았다. 양계농가들은 이점을 지적하며 백세미 관리기준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위원으로 참석한 이연중 부회

장(분회 종계·부화 분과위원장)은 “실제로 양계협회에서 2005년도 합의문까지 작성된 종계에 준하는 백세미 관리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라는데 종계농가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정부가 삼계탕 제품 홍보에 1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방역관리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세미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은 이미 산업적으로 수요가 많은 백세미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제도권화 하여 질병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종계에 준하는 백세미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티푸스 근절을 위해 음성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티푸스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장기계획

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살처분(강제폐기) 보상책과 합당한 보상안 마련, 백세미 종계에 준하는 기준마련, 지역 검역소 등과 연계한 정기점진, 도태여건 조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구체적인 방안마련도 강조했다.

4) 삼계탕의 산업 가치 고려를

실제로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백세미는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개발돼 여름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부드러워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육용종계보다 산란실용계에서 닭고기를 생산함에 따라 생산 부담이 적어 관련업계의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 육계입식량의 20%에 달하는 점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닭고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음식업계에서 방역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한다는 느낌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주지는 말아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백세미에 대한 방역관리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제 2의 만두파동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2. HPAI 현황 및 대응방안

협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AI특별감시체제를 운영하면서 HPAI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국내는 HPAI 청정지대이며 선진국 방역수준으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오리농법이 증가하고 있어 오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국내로 유입되는 산물의 지속적인 검역과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검진결과를 년 1~2회 정도 검사결과를 보도·홍보하여 국내지역 청정하다는 인식시켜 줄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는 인체에 해를 주는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시를 대비하여 강제폐기(살처분) 대상자 선정,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실험실 여부, 전문인력과 팀 구성여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준현 과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원에서는 현재 수입되는 모든 산물에 대해 검역되고 있으며 종오리농장, 남방철새 등의 검사결과 HPAI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다가오는 겨울철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11월~내년 2월말까지 AI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감시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

역방문 자제와 농장내 질병을 전이할 수 있는 매개체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준현 과장은 국내 HPAI 유입시 강제폐기(살처분) 정책이 시행되며 확산시 H5N3형 백신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방침도 전하며 국내방역체계 상황을 설명했다.



▲ 이연중 부회장이 백세미와 관련하여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3. 효과적인 ND 근절대책 방안

ND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에서 5개년간 백신지원 등 ND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ND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ND가 변이형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백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독백신의 경우 단가비용이 증가하는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여 실용화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사독백신(단독, 혼합 등)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는 백신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ND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적용시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며 나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양계**